

Daily Auto Check

2021. 9. 27(Mon)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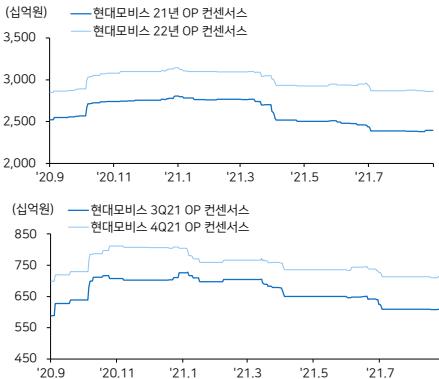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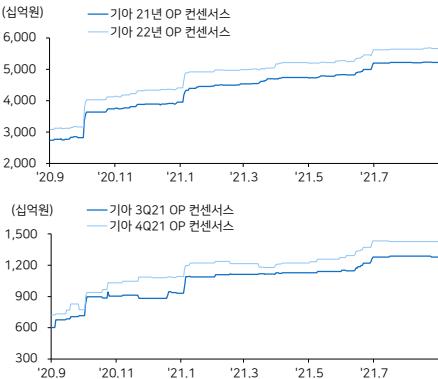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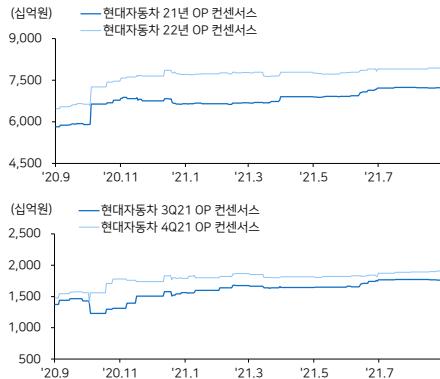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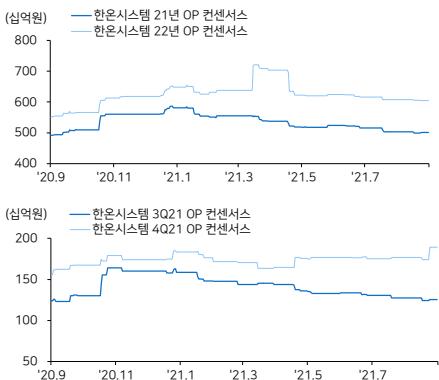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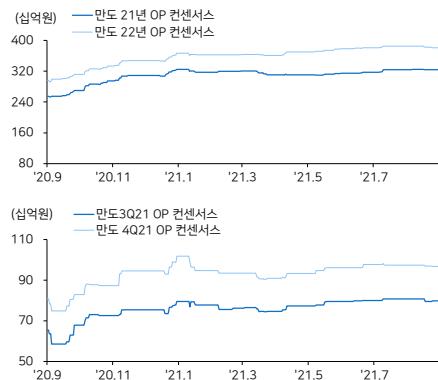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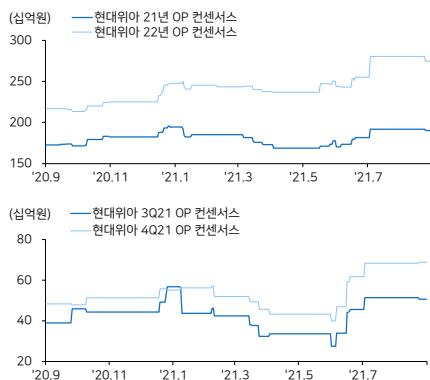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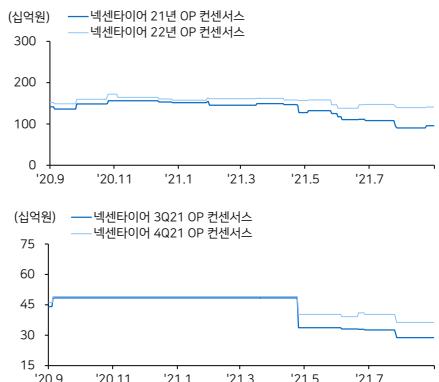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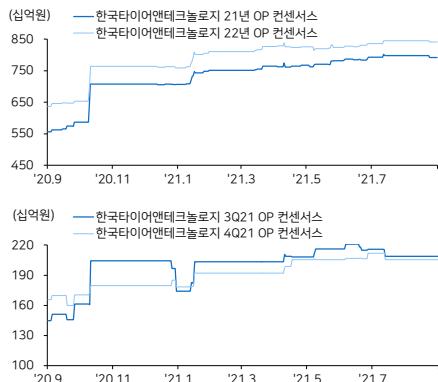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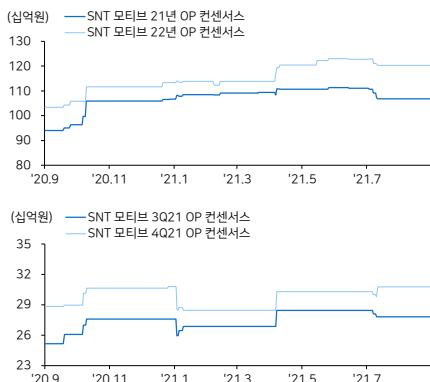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모서널, 로보택시 R&D 대폭 강화…테스트·운영센터 2~3배 확장 (THE GURU)

모서널은 23일 라스베가스 자율주행 테스트 시설과 운영 센터를 각각 3배와 2배 확장하고 신규 연구인력 1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을 2월 라스베가스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다수의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성공함.

<https://bit.ly/3ue1tp9W>

현대차·기아, 친환경 SUV 내수판매 '질주'…해외에서도 판매 '박차' (아시아경제)

올해 아이오닉6, EV6 등 친환경 SUV를 9개국에 출시하고 있는 현대차·기아가 국내에서 지난해보다 친환경 SUV를 2배 이상 판매, 볼미 등 주요 시장에서도 친환경차-SUV 신차 효과를 보는 만큼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

<https://bit.ly/3m5mfFer>

"미래 시장 선점하자" 서비스로 맞붙은 차업계 vs IT업계 (머니S)

MaaS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자동차업계와 정보기술(IT)업계의 신경전이 치열해짐. IT업계는 이미 구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계 중이며, 자동차 업계는 제조업을 탈피하여 MaaS 사업 진출 노력을 총력 중.

<https://bit.ly/2WfJldF>

BMW "전기차 주력…수소차 틈새 불과"…수소차 포기선언(?) (THE GURU)

프랑크 베버 BMW 대표 이사는 BMW가 순수전기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3년까지 출시되는 라인업 90%에서 최소 1개 BEV를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수소는 대중적 솔루션이 될 수 없고 틈새시장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임.

<https://bit.ly/2WfKYNV>

현대차·기아, 10년 공돌인 러시아서 1위 깃발 꽂았다 (한국경제)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3만1,383대를 판매해 27.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러시아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섰. 기존 1위였던 르노·라다는 지난달 2만9,127대를 판매해 25.5%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2위로 밀려났.

<https://bit.ly/3lYlsT>

"오늘 계약하면 내년 출고"…草업계, 반도체 소티지에 '발등등' (이데일리)

지난 7월 출시된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는 출고까지 16~24주 소요되며, 카니발은 10~24주, 투싼 24주 이상 등 인기 차종 중심으로 출고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중. 업계는 내년에 반도체 소티지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함.

<https://bit.ly/3EukgMc>

中 미래 시장 투자 놀리는 글로벌 완성차 (디지털타임즈)

GM이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모멘타'에 3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중국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이어짐. 중국은 유럽과 함께 최대 선거기 시장으로 끌어들여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관심을 받는 중.

<https://bit.ly/2WfJldF>

China's Geely to set up 5,000 battery swapping stations by 2025 (Reuters)

중국 지리자동차는 '25년까지 전세계 5,000개의 배터리 교환소 설치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배터리 교환소를 최초로 도입한 NIO는 '25년까지 4,000개의 교환소 설치 목표를 밝힌 바 있음.

<https://reut.rs/2XOvHI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